

21.1.21일

오후 6시 10~30분 사이

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안도와준다.. 가만히 있는데
미경아 힘드니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사기꾼이
다.. 라는 말을 하면서 내 오른쪽에 앉아서
오른쪽 팔뚝 아래를 잡으면서 흔들면서 이야기
근데 어깨쪽 팔뚝 끝쪽이 아니라 좀더 아래쪽을 잡아
서 / 미경이 힘드니..? 도와줄까..? 하고 사기꾼이 걱
정하는 척 할때 내 팔뚝 잡음
그 강사의 검지/중지 마디가 내 밑가슴에 닿음.. 2번
정도 + 20초 정도 닿음
실수인가해서 치우려고 팔을 살짝 옮겼는데 힘주고
계속 그자리에 잡으며 손 가슴 밀착
난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지켜보느라 눈 깔고 있었는
데 그 사람은 응? 응? 하면서 내 얼굴 쳐다보고 잇었
음 내가 즉각 반응하는지 보는듯. 내가 눈 까는동안
계속 가슴에 손 닿고 있었고 눈 마주치고 네 하고 대
답하니까 그제서야 손 놓음
나에게 말 끝나고 가슴에서 손뎌뒤 태연하게 옆자리
맥북 연결포트 오류 봐줌
(복장 파란옷.. 올때 롱패딩입고 왔었음)

"놔주시겠어요 / 그거 놓고 얘기하세요 / 거기 잡지
마세요 / 터치하는 거 자제해주세요"

만지는거 자제해주세요

그거 놔주세요

손떼고 얘기해주세요

설명하는건 좋은데 이제 만지는거 마세요

이제 안터치면 좋겠어요

저 이제 만지는거 불편하니까 만지기 마세요

다
2
168
22